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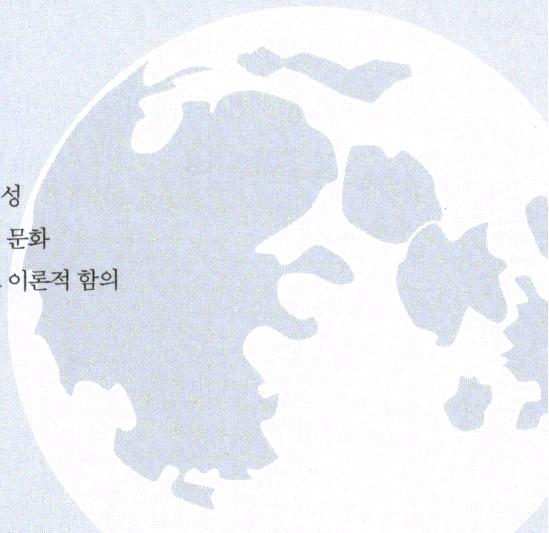
##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 박사

### 주요 논저

-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 『한국社会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 『경제사회학이론』

- 문제제기
- 세계화의 이해
- 문화의 세계화: 지역성의 재구성
- 자본·소통·정체성으로서의 문화
-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 그 이론적 함의
- 맷음말



04

## 세계화와 문화 \_자본, 소통, 정체성의 긴장과 이완

문화 세계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중심과 주변, 지배와 피지배, 보편과 특수, 강한 문화와 약한 문화의 이분법적인 구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양단론적인 접근은 문화가 지닌 구성적 복합성과 중층적 구속성을 읽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문화에 관한 기존의 동질화와 이질화 논쟁을 넘어 글로벌 문화의 논리와 동학을 제시한다. 먼저 문화의 실체를 자본으로서의 문화, 소통으로서의 문화, 정체성으로서의 문화로 개념화하였으며, 로컬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문화의 동학을 자본과 소통과 정체성의 긴장과 이완의 함수 관계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을 교차하여 강한 글로벌과 강한 로컬의 접합이 오늘날 가장 지배적인 형태임을 강조하였다. 세계화 시대의 문화는 글로벌의 일방이나 로컬의 저항이라는 단순 구도로서는 독해될 수 없으며, 상호작용의 다양한 배합과 지역적인 것의 다양한 조정 양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1. 문제제기

세계는 하나이자 동시에 여럿이다. 보편적인 것이 보편의 외연을 넓히는가 하면 특수적인 것으로 변하고, 동시에 특수가 보편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중심이 주변을 동질화시키는가 하면, 주변의 국지성이 강화되기도 한다. 문화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경계를 넘어선 혼용과 잡종이 융성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가 과거의 정체성을 해체한다. 그런가하면 세계화의 추동들이 교차하는 곳에 새로운 정체성이 등장한다. 세계 문화를 주제로 그 현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문화의 간극을 폭넓게 다룬 책들이 대중적 인기도서 목록<sup>1)</sup>에 오랫동안 올라 있다. 이를테면 지하드와 맥월드의 비교,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의 비교, 문명의 충돌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오늘의 세계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이곳저곳에서 주창된다. 이렇듯 세계화의 시대사적 거대전환이 만들어 낸 새로운 문화 풍광은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세계화(글로벌화, 지구화, Globalization)의 건축구조는 너무 장대하여 한 눈으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결코 쉽지 않다는 미텔만의 지적<sup>2)</sup>은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더 적실해 보인다. 세계화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한마디로 경쾌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 다소 과장하여 세계화 논자만큼 세계화의 규정이 있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니 말이다. 세계화의 존재 여부를 놓고서도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이 형성된다.

1)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목록으로는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의 『지하드와 맥월드』,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고신뢰사회의 문화와 저신뢰사회의 문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J. Mittelman, "Globalization and Environmental Resistance Politics," *Third World Quarterly*, 19-5(1998), p.849.

오늘의 세계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totally new)’라는 시각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nothing new)’는 대립각을 세운 시각이 있으며, 세계화의 시대적 변형을 강조하며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something new)’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적 지향<sup>3)</sup>이 각각의 논지를 펼쳐낸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장대한 건축구조는 단일 모형의 병렬적 조합이 아니라 다양한 모형의 다양한 차원들의 복합적 층위에 의해 축성되어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구성 영역이 다차원적이고 각 차원에서 전개되는 작동원리와 사회형상의 다름으로 인해 세계화 논의가 쉽지 않지만 동시에 풍부한 애깃거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를 단순하게 독해하더라도 경제 세계화, 정치 세계화, 문화 세계화의 여러 차원으로 구분되며, 각 차원에 따라 세계화의 개념이 상이하게 특징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화의 역사적 형태, 내용, 작동의 원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sup>4)</sup> 때로는 세계화의 각 차원이 동시대에서 조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sup>5)</sup>. 예컨대 경제세계화의 중심 영역으로 여겨지는 무역, 생산, 투자, 금융의

3) 이는 세계화 과잉론, 세계화 회의론, 세계화 변형론으로 정리된다. 과잉론은 오늘의 세계화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로 규정하고 시장의 규율에 의한 사회질서의 형성, 단일 세계시장의 출현, 전지구적 경쟁원리, 국가의 축소를 지적하면서 세계화를 시대사적 새로운 문명으로 간주한다. 회의론은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세계화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변형론은 세계화의 현재 모습을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독특한 양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새로이 전개되는 전지구적 상호 연결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은 불확실성과 복잡성 속에서 모든 것이 재조직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변화가 나타남을 강조한다. D. Held, A. McGrew, D. Goldblatt, J. Perraton, *Global Transformati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박길성,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서울: 고려대출판부, 2003).

4) M. Waters, *Globalization*(Routledge, 1995); D. Held, A. McGrew, D. Goldblatt, J. Perraton, *Global Transformati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Stanford CA: University Press, 1999).

5) J. Nye Jr.,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 Superpower Can't Go It Alone*(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84.

작동 논리를 동일선상에 올려놓을 수 없으며, 문화 영역에서도 문화산업 분야는 경제의 세계화와 흡사한 시장화나 동질화가 강조되는 반면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문화는 이와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인다. 세계화의 패러독스는 세계화의 구성 영역들이 균질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찾아진다. 경제영역에서의 세계시장주의, 정치영역에서의 세계정치 형성,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세계시민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주요 양상은 세계시장주의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형국이다. 이 시대가 정작 필요로 하는 다양성의 공존과 같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sup>6)</sup>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인해 세계화는 오늘날 가장 유망한 지식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sup>7)</sup>

오늘의 사회를 진단함에 있어 전자구적 전환(global transformations)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세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이상 신선하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세계화가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을 아우르는 시대적 흐름과 제도형성의 대명사로서 새로운 풍요와 배제의 메커니즘을 전자구적 규모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국가 간 경제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느냐와 이에 따라 어떤 사회적 결과가 만들어 질 것인가로 모아진다. 다시 말해 국제교역이나 투자의 확대 방안을 비롯하여 이러한 확대가 가져 올 사회적 결과, 특히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계화에 관한 논의의 무게 중심도 다소 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 세계화를 둘러싼 관심의 대상은 영역별로 보면 재화, 서비스, 자본,

6) 박길성,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서울: 고려대출판부, 2003), p.23.

7) J. Campbell, *Globalization and Taxation in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Unpublished Manuscripts, 2002), p.10.

노동과 같이 대체로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이외는 다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제교역이나 교류의 규모, 범위, 내용의 확대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에 있다. 양화 가능한 교역과 교류를 넘어 유형적이지는 않지만 강한 구속력과 영향력을 지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관심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으로서의 세계화가 쟁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화가 형성의 단계를 넘어 제도화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글로벌 규범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세계화의 중요 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전히 세계화에 대한 주요 의제는 무역, 생산, 투자,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세계화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은 경제영역은 물론이고 국가 간 관계 영역의 전반을 대상으로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제가 어떻게 확대되느냐의 문제로 넓혀지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의 외연과 내포가 무한히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누가 글로벌 기준을 만들며 어떻게 확산되느냐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은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제규범의 강화 추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환경, 인권, 보건,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인식되면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국제규범으로 작용한다. 기업에 대한 평가 역시 단순히 생산요소에 따른 이윤의 단일 함수로 설정되던 과거와는 달리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여러 규범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 함수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세계사회가 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긴장의 근본적인 본질은 어떤 의미에서 글로벌

---

8) 박길성.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 제7집 1호(2006), p.177.

스탠더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에서 비롯될지도 모른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핵심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김없이 표출된다.

문화의 세계화를 둘러싼 그동안의 최대 쟁점은 동질화와 이질화의 긴장과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질화의 논의는 주로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미국화와 상품화의 논의를 주장한 것이라면, 이질화의 논의는 문화의 보다 본질적인 고유 영역을 대상으로 동질화의 힘을 현지화하거나 문화의 지역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의의 한 축에 문화제국주의론이 있으며, 다른 한 축에 문화다원주의론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질화와 이질화의 테제는 세계화와 맞물려 전개되는 문화의 복합성을 독해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특히 세계화의 논의에서 문화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가진다. 문화의 세계화는 기존 세계화 담론의 단골 메뉴인 지배와 피지배 혹은 중심과 주변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로는 독해할 수 없는 복합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문화의 복합성은 문화제국주의 혹은 문화다원주의의 일방에 의해 독해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문화 세계화는 문화적 미국화에 다름 아니라거나, 역으로 문화 세계화는 지역의 문화가 평등하고 조화롭게 재구성된다는 주장으로 경도되기 일쑤다. 문화의 세계화를 둘러싼 국가 간 대립은 경제 혹은 정치의 세계화를 둘러싼 국가 간 대립, 주로 중심부와 주변부의 대립과는 사뭇 다르다.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글로벌의 일방성과 로컬의 정치성이 어떤 조합으로 엮여지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문화에 관한 기존의 동질화와 이질화의 이분법을 넘어 글로벌 문화를 관통하는 속성으로 자본, 소통, 정체성을 설정하고 이의 긴장과 이완으로 오늘의 글로벌 문화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계화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지점을 정리하면서 문화의 세계화 내용을 검토하며, 세계화가 문화에 왜 중요한가를 논의한다. 아울러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기준의 이분법적 논의를 비판하며, 이를 넘어서는 작업을 모색하려 한다. 먼저 문화를 구성하는 실체를 자본, 소통, 정체성으로 개념화하며, 다음으로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 2. 세계화의 이해

(1) 1980년대 후반의 거대전환: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의 동시대성이 시대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는 거대 전환의 핵심은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로 모아진다. 오늘날 지구상 그 어떤 사회도 그리고 한 사회내의 그 어떤 부분도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980년대 후반을 거대 전환의 시점으로 지목하는 데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과 흐름이 있었음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80년대 후반을 시점으로 각기 다른 동력과 논리에 기반을 둔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가 동시대에 맞물려 동시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때부터 서로를 가속화하면서 질주하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경제시대의 완성, 냉전시대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보편화, 정보화 시대의 일상화가 시대의 사회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세계화는 70년대 선진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주의 재구조를 배경으로 80년대 말 전 세계의 지형도를 바꾼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지구촌의 가장 보편적인 지배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완전 타결은 WTO체제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시장의 작동에 방해가 되는 제도적인 요소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명실 공히 시장의 시대를 완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현실적으로는 국가나 시장이나의 이분법적인 상승과 하강의 20세기 역사 구도에서 일단 시장이 화려하게 복귀를 하였다. 물론 세계화에는 시장의 일방성만이 관철되는 것은 아님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세기의 역사는 민주화의 역사임이 분명하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은 민주주의 상승이 20세기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촌에서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지중해에서 남미로, 남미에서 동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동구와 러시아까지 도달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촌의 보편적 정치적 지배원리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sup>9)</sup>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나타난 냉전체제의 종식은 단순히 동서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넘어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완성으로 연결된다.

정보화는 70년대 자본주의 재구조화를 배경으로 생산성의 수수께끼를 담고 신경제를 창출하면서 80년대 후반에 들어 일상화되었다.<sup>10)</sup> 80년대 말은 정보사회의 실체인 거리의 무의미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기 시작한 시기다. 직접위성방송과 휴대폰의 상용화, 인터넷의 실용화가 시공간의 응축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새로운 정보의사 소통 질서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민주적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의 거대 변환은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가 동시적으로 출현한 일반구조(deep structure)와는 상당

9) 임혁백,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계간사상』 여름호(1998), pp.7-8.

10) M.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Malden, MA: Blackwell, 2000).

한 차이가 있다. 이른바 87년 민주화의 대장정은 비록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민주화를 한국 사회 거대전환의 한 축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어서 세계화, 정보화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거대전환의 경험 궤적을 밟게 된다.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는 정부 주도로 뚜렷한 세계화의 청사진도 없이 해야 한다는 국정의 슬로건으로 당위성만을 앞세운 채 발주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세계화는 97년 외환위기와 맞물리면서 왜곡된 대목이 적지 않게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특수성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 (2) 세계화의 내용과 세계성의 성찰

현재의 세계화는 수많은 색깔의 다양한 날실과 씨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날실로 분리하거나 그것만의 내부동학이나 구조만을 강조 할 수 없다. 보다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화의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에 관해 일차적으로 지목하는 내용은 전지구적 상호의존의 심화 (deepening global interdependence)로 모아진다.<sup>11)</sup> 빠르게 확산되는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은 모든 영역을 보다 밀도 높은 초국가적 교환체계의 네트워크로 묶어낸다. 카스텔은 이러한 모습을 지식과 정보에 의해 추동되는 네트워크 사회를 그리기도 한다.<sup>12)</sup> 그래서 사회들은 다른 사회와 점점 더 공존해야하는 상황에 뒷게 되며, 동시에 사회들 간의 경계는 무너진다. 상호 연결 네트워크의 밀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세계를 지역성과 지리적 특성이 점차 사라지는 하나의 장소(one place)로 개념화하기에 이른다.<sup>13)</sup>

---

11) A. Giddens, *Sociology*(Cambridge, UK: Polity Press, 1997).

12) Castells(2000)

다음으로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의 응축으로 정리된다. 이것은 공간적 거리가 무의미해지고, 실시간으로 세계의 지역이 연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로버트슨은 문화와 사회가 압축되고 상호 작용이 보다 증가되는 상황을 ‘세계의 압축’으로 표현하고 세계가 단일체계로 변함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시간과 공간의 응축을 이론적으로 정치하게 정리한 하비 또한 공간이 구체적인 지역성과 연결되어 해석되던 전근대사회와 다르게 공간과 시간은 보다 응축되고 조작 가능한 대상이 되면서, 세계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주장한다.<sup>14)</sup>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의 심화는 세계가 직면하는 문제의 공통성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아울러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전통적인 국민국가는 물론이고 초국적 기업, 국제기구, 국제비정부민간조직(INGO), 여행객, 이주자 등이 중요한 행위자로 세계를 활동의 장으로 삼고 있다.

세계화는 상호 의존과 연결의 객관적 구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전지구적 상호 의존과 연결의 구조 속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나 인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과정의 문제에 달려있다.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라고 지적한 로버트슨의 언급<sup>15)</sup>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련의 객관적 구조를 동반한 세계화가 인류의 주관적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세계의 사람들을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

---

13) Waters(1995).

14) 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I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Malden, MA: Blackwell, 1989); R.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Thousand Oaks, CA: Sage, 1992).

15) Robertson(1992), p.8.

의 삶을 세계시민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에 따른 인류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담보되는 세계성의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근대성, 근대주의와 비교되는 세계성, 세계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코엔과 케네디는 세계성이야 말로 새로운 현상이라고 강변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한다.<sup>16)</sup>

첫째, 우리 자신을 집합적으로 사유하는 것으로서, 인류를 하나의 실체로서 집합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간성에 대한 또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한 예로 넬슨 만델라의 석방이 전 세계적 관심을 받는 이유기도 하다.

둘째, 다문화 또는 초국적 인식의 증대다. 문화나 정치의 단일 방향적 흐름은 종결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문화는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서구에서 기인하긴 하였지만, 근대성의 특징들은 이제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틀을 넘어 이제는 다른 문화의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성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대중교육이나 과학적 지식의 확산과 함께 전문가 체계에 권한이 부여되기도 하고, 탈미신화 메커니즘 또한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것과도 관련된다. 특히 세계화가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우리 일상 속에 끊임없이 끼워 넣음으로써, 성찰성과 개인화를 계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확장이다. 정체성을 구조 짓는 방법이 변화되었다. 세계화시대에 지역적인 것과 특수한 것만으로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되지 못한다.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 간의 적절한

---

16) R. Cohen, and P. Kennedy, *Global Sociology*(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0), pp.35-38.

접합이 요구된다. ‘선택’, ‘적응’, ‘저항’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실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다양하게 확인하게 되고, 정체성을 확장해 나간다.

### 3. 문화의 세계화: 지역성의 재구성

문화는 본디 ‘장소에 머물게 하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문화와 장소의 결속은 인류학적인 원초적 기억을 더듬지 않더라도 인류사회의 오랜 일상의 모습으로 체현되었다. 문화에 대한 사고는 은연 중에 그 의미구성을 특수성(particularity)과 지역성(locality)과 연결시켜 왔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역성은 문화에 있어 오랜 연고를 가진다 하여도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화에서의 장소가 지니는 연고성이 세계화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다. 이를 아파두레이 같은 학자는 장소로 부터의 탈구(displacement), 톰린슨 같은 학자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로 개념화하였다.<sup>17)</sup> 다시 말해 문화가 세계화로 인해 변형되고 있으며, 탈지역화(탈영토화)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세계화는 문화를 개념화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생활의 질서로 이해된다. 세계화로 인해 생활의 질서를 이해하는 틀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세계화는 물리적 유동성을 더욱 조장하지만, 세계화의 문화적 영향력의 핵심은 지역성 그 자체의 변형에 있다.<sup>18)</sup> 변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에서

17) A. Appadurai,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1990), in J. Tomlinson, *Globalization and Culture*(1999), 김승현·정영희 역, 『세계화와 문화』(서울: 나남, 2004).

비롯한다. 하나는 멀리 떨어진 영향력의 지역 세계로의 침투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에 근거한 일상적 의미의 변화다. 이로 인해 지역성은 퇴색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제에 대한 그동안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문화제국주의론이 그 하나고, 문화다원주의론이 다른 하나다. 문화의 글로벌화에 대한 문화제국주의론은 문화를 통해 제국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해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주장을 편다. 문화제국주의론에 의하면 세계화의 최종 목표는 보편성이라는 목표하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특수 의지, 그리고 자체 권력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문화적 단위도 신속하게 와해시킴으로써 전 세계 문화의 보편화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문화의 보편성은 항상 강력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문화적 질서, 가치 기준, 권력 실천을 기준으로 삼는다.<sup>19)</sup> 이들의 논지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생적 문화 생산을 탈구시키는 세계화는 지역적 분야별 다양성을 연결하고 동질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문화 산업의 팽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능력이 떨어지는 생산자를 도태시키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변부 문화는 지역적 전통이라는 좁은 틀 안에 고립된다.<sup>20)</sup> 세계 문화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서구의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 문화이며, 불평등한 시스템을 떠받치는 혜계모니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sup>21)</sup>

---

18) J. Tomlinson(1999), 위의 책 p.30.

19) 왕즈민, “세계화 추세와 중국 영화의 문화적 위상”, 김창민 외 편역,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서울: 한울, 2005), pp.255-256.

20) N. Canclini, “세계화와 정체성 논의에 대한 또 다른 시각”, 김창민 외 편역,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서울: 한울, 2005), pp.121-122.

21) F. Lechner and J. Boli, *World Culture: Origins and Consequences*(Malden, MA: Blackwell, 2005), 윤재석 역, 『문명의 혼성』(서울: 부글북스, 2006), p.65.

극단적으로 표현하여 상품화된 문화생산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선진국 몫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도 문화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말이다. 문화의 복잡성은 선진국 간의 갈등의 첨예화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문화를 기준으로 설정된 중심과 주변의 간극은 결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갈등은 그만큼 더 커진다.

한편 문화의 글로벌화는 근대 제국주의 시대의 문화지배와 분명 다른 점이 있으며, 글로벌 문화는 중심과 주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생산과 수용의 구분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문화 다양성의 담론이 등장한다. 오히려 글로벌 문화의 형성은 국지적 문화가 적극적으로 옹호되고 변형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그 나름의 자생적 토대 위에 다원화된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컬 문화(glocal culture)의 성격이 강조된다.<sup>22)</sup> 문화적 다양성이 글로벌 시대에도 여전히 문화 질서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통하는 상징들이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한, 그 다른 것도 누군가의 고유문화가 될 수 있다. 세계 문화는 다양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강화한다.<sup>23)</sup> 글로벌 문화에는 다원성, 혼융성, 지역성에서 배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화는 미국 문화 중심의 획일화에 지나지 않으며 문화 다양성 파괴와 미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 종속으로 귀결된다는 문화제국주의 시각은 물론이고, 세계화를 다양한 문화의 상호 소통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파악하는 문화다원주의 시각 모두 문화의 복합성과 복잡성을 포착하기에

---

22) 이동연,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자본의 논리”, 『문화과학』 47호(2006), p.73.

23) Lechner and Boli(2005), p.64.

는 한계가 있다. 경제와 정치의 영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화 영역의 세계화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화는 동질화와 이질화, 보편화와 특수화, 상품성과 탈상품성, 절대화와 상대화, 중심화와 탈중심화, 통합과 분리의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문화의 세계화는 기존 세계화 담론의 단골 메뉴인 지배와 피지배 혹은 중심과 주변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로는 독해할 수 없는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 4. 자본 · 소통 · 정체성으로서의 문화

문화 세계화는 동질화와 이질화의 갈등이고, 여기에는 이른바 강한 문화와 약한 문화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를 간의 선택과 수용과 저항의 정치가 복잡하게 작동한다. 아파두레이는 문화를 전지구적 문화의 동질성과 지역적 문화의 차이성 사이에서 진행되는 긴장의 정치학으로 보았다.<sup>24)</sup> 세계화가 가져오는 문화변동의 틀을 ‘문화적 동질성’과 ‘문화적 이질성’ 간의 긴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파두레이는 세계화를 근본적으로 분절(disjuncture)하는 특징의 구조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이 서로 경합하는 복합적인 흐름으로 본다. 더 이상 기존의 중심-주변 모델로 파악될 수 없다는 논지다. 따라서 문화의 세계화는 단순히 동질화의 일방성 혹은 지역성의 저항으로 끝나지 않으며, 때로는 서로가 강화하며 때로는 서로를 해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질화와 이질화의 양분법적인 논의를 넘어서기 위해 본 논문은 문화를 구성하는 실체로 자본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capital), 소통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communication), 정체성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identity)

---

24) Appadurai(1990), p.296.

를 지목한다. 다시 말해 문화는 자본의 논리로, 소통의 논리로, 정체성의 논리에 근거하여 여러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글로벌 문화의 형성에는 문화상 품, 자유경쟁, 문화소비가 뒤섞인 자본의 논리뿐만 아니라, 문화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통의 원리, 지역 문화의 자율성과 고유한 삶의 가치가 관철되는 정체성의 논리가 작동한다. 글로벌 문화에는 기본적 일방성, 소통적 다원성과 혼융성, 정체성 중심의 국지성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문화는 강한 문화를 앞세운 자본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원화된 문화들의 공존과 교류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에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문화의 구조와 변동의 틀은 자본, 소통, 정체성 간의 긴장과 이완으로 표현된다. 이들 사이의 긴장과 이완이 기존의 이분법적인 동질화와 이질화의 논쟁을 넘어서는 소재가 된다. 자본으로서의 문화 논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문화는 생산관계의 반영으로 나타나며 문화 자체는 독자적이고 내재적 논리나 규정성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문화란 도구적 효율성의 논리로, 물질적 자기 이해로서의 실행으로 인식된다.<sup>25)</sup> 이 부분은 문화의 산업적,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며, 문화적 미국화를 떼어 놓고서는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적 미국화는 전 세계의 문화에 개입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화자본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며 이윤 창출의 기제로서 자본의 성격을 강화한다. 이렇게 볼 때 글로벌 문화는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의 문화가 성장하고 교류하는 형세가 아닌 미국적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적 문화들이 양산되는 형세를 의미한다.<sup>26)</sup>

---

25) 임희섭, “문화정책에서의 문화의 실용논리와 의미논리”,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서울: 나남출판, 2002), p.24.

오늘날 문화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많은 자본으로서 문화의 성격은 문화산업을 통한 문화의 상업화에 대한 언급으로, 문화는 이윤을 획득하려는 강요에 종속된 상품으로서의 측면이 부각된 것이다. 오늘날 현상적으로는 자본의 논리가 문화의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다. 사실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화적 차이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sup>27)</sup> 물론 문화는 자본의 세계화로 환원할 수 없는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말이다.

소통으로서의 문화는 일찍부터 문화인류학의 문화에 관한 중심 패러다임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소통이 인간 삶과 문화체계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통을 문화로 보려는 노력은 문화인류학의 중요한 연구 경향이다. 대표적으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소통을 통한 호혜와 교환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도 중요하지만 누가 소통을 통제하느냐는 권력과 관련된 대목도 커다란 관심 대상이 된다.<sup>28)</sup> 이제 소통의 외연이 넓혀진 세계화는 문자 그대로 교류의 확대를 의미하며 기존의 경계를 넘어선 소통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가 연결되는 문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 간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증가되면서 국지적 장소의 경계에서만 소통되던 문화의 양식이 경계를 넘어선 복합적 양상으로 소통된다.

세계화를 문화의 문제로 풀어내려는 인류학자에게 허용되는 공간에는 문화 간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포함된다. 소통으로서의 문화는 문화의 상호성을 전제한 것으로서, 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

26) 이동연(2006), pp.68-69.

27) Tomlinson(1999), p.20.

28) 한경구, “소통으로서의 문화”,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서울: 나남출판, 2002), p.39.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 문화 다양성 선언문에서는 일단 문화를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며,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 생활양식·인간의 기본권·가치·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문화 다양성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간주하며, 세계화로 인해 약자의 문화가 소외 혹은 약화되고 이의 자유로운 표현이 빙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수의 문화, 약자의 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보호가 아니라, 다른 문화가 존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 문화 간의 소통이 글로벌 문화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정체성으로서의 문화는 문화를 사회적 삶의 의미체계로 규정한다. 세계화의 시대에서 정체성은 학문이나 일상적 삶에서 기본적인 담론이 되고 있다.<sup>29)</sup> 인간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능력으로서의 문화가 부각되는 것이다.<sup>30)</sup> 정체성이란 사회적 행위자가 여러 사회 구조들과 폭넓은 관련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주어진 문화적 속성 또는 속성의 네트워크만을 기초로 하여 스스로를 분별하고 자신의 인식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정체성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혹은 개인성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제공한다. 문화의 세계화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심화시키고 문화적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체현함과 동시에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기도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국민국가 중심의 완고한 문화 정체성이 중심을 이룬다. 때로는 원초주의에 입각한 민족 문화의 허구성이 내포되어 있다.

29) M.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Malden, MA: Blackwell, 2004).

30) L. White, *The Science of Culture: Study of Man and Civilization*(NY: Farrar, Strauss, and Cudahy, 1949).

한국 사회의 경우 한국인의 정체성은 근대화 프로젝트와 쾌를 같이 한다. 이는 민족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였다. 국가와 사회와 민족이 동일시 되어 이들이 마치 자체의 생명력을 갖는 하나의 동질적인 유기적인 것으로 작동한다.<sup>31)</sup> 세계화는 문화의 내밀한 정체성을 위기로 모는 대목도 있지만, 그것들의 의미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결국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내용은 자본의 논리와 소통의 논리, 그리고 정체성의 논리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한 논의로 발전된다. 글로벌한 문화 환경의 도래로 국지적 문화 형태들이 혼용화되고 다원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국적인 문화자본의 논리에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sup>32)</sup> 세계화는 경제, 정치, 문화, 기술 등의 영역이 동시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결된 과정이기에 세계화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저항, 대안을 포함한다. 특히 문화의 영역에서 등장하는 절대와 상대, 보편과 특수, 세계와 지역, 민족과 탈민족, 전통과 현대의 대립과 공존은 세계화에 대한 이해에 특별히 문화의 문제를 최전방에 위치시키는 까닭이기도 하다.

## 5.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 그 이론적 함의<sup>33)</sup>

앞서 지적하였듯이 글로벌의 보편과 일방이나 로컬의 특수나 저항의 관점에서 문화의 세계화를 독해하려는 기준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31) 정호영, “IMF 사태와 정체성의 변화”, 미발표논문(2000), p.10.

32) 이동연(2006), p.78.

33)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는 Gil-Sung Park, Yong Suk Jang and Hang Young Lee(forthcoming), “The Interplay Between Globalness and Localness: Korea’s Globalization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48, no.4-5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임.

문화의 세계화 논의는 미국 문화 중심의 획일화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강변하면서 문화 다양성 파괴와 미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 종속으로 귀결된다는 문화 제국주의적 시각과 거리를 두어야 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세계화를 다양한 문화의 상호 소통을 담보하는 조건으로만 파악하여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학 관계를 놓쳐버리는 다문화주의의 환상에 힘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34)</sup> 이러한 지적이 던지는 메시지는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을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과제는 상호작용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다.

최근 세계화 논쟁의 핵심은 세계화가 국가 간의 차이를 뛰어 넘는 전 세계적 유사성을 추동하고 있는가와 관련한 것들이다.<sup>35)</sup> 이러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대별되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개별국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점점 유사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장하는 전 세계적 동형화(worldwide isomorphism)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역사적·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온 고유의 특수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개별 국가의 경로의존성(national path dependency)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첫 번째 입장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 점점 유사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조적 측면에서 더욱 더 비슷한 모습으로 전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개별국가들의 노력의 집합적인 결과가 바로 전 세계적 수렴현상 내지 동형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 전통적 균대화론을 필두로 매우 두터운 역사를 지닌다.

---

34) 김창민 외,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서울: 한울, 2005), p.7.

35) M. Guillen, *The Limits of Convergence: Globalization and Organizational Change in Argentina, South Korea and Spai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전 세계적인 유사성 중대 경향과 관련하여 마이어를 비롯한 일군의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학자들이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화적·제도적 측면에 좀 더 주목할 필요다 있다.<sup>36)</sup> 이들은 합리화의 결과로서 여겨지는 여러 제도들, 이를테면 관료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는 방식, 국가의 공식적인 교육제도의 운영, 인권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과학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문의 양상들을 살펴보면 국가 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대개 조직 내지 제도는 이를 둘러싼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변화해 나간다. 이때의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일련의 문화적 규범과 지침으로 구성된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s)이다. 제도적 환경은 제도 내지 조직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서부터 그 구체적 실행지침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항들에 대해 정당화된 기준들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조직 내지 제도는 제도적 환경이 제공하는 규범과 지침을 단순히 따르는 것만으로도 대내외적인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은 이전 시대에 비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비약적 성장을 보여 주었다. 국가 간 상호 작용의 증대는 국가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으로서, 그리고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 세계 문화(world culture)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일반적인 내용으로서는 평등, 복지, 성장, 인권, 국제적 협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37)</sup> 합리적으

---

36) J. Meyer and B. Rowan,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1977), p.83.

37) J. Meyer, and R. Jefferson, "The Actors of Modern Society: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ocial Agency," *Sociological Theory*, 18-1(2000); E. Schofer, F. Ramirez and J. Meyer, "The Effects of Science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1970-199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6(2000); R. Scott and J. Meyer et al.,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Organizations: Structural Complexity and Individualism*(Thousand Oaks, CA: Sages, 1994).

로 정의된 관행을 도입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존재한다.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러한 세계 문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세계 문화를 거부하는 국가들은 대개 ‘불량국가’ 내지 ‘비정상 국가’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인식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당해국가의 정당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국가 자체 또는 정권의 위기로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국가들은 일시적으로는 그 나라의 특유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sup>38)</sup> 국가 간 상호 의존이 점점 더 심화되어 세계 문화가 확산 일로에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그 형태나 기능면에서 점점 더 유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별 국가의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비교사회적·역사적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점증하는 세계화의 경향 속에서도 개별국가는 여전히 그 지역적 유산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9)</sup>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의 한 축을 이루는 국가 경로 의존의 입장은 현대 사회의 전 세계적 수렴현상을 강조하는 첫 번째 입장과 달리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가 간에 보이는 상이한 특질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제도 및 조직을 이해함에 있어 이를 둘러싼 국가 및 사회적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국가의 제도 및 조직은 그것이 위치한 사회적 환경 속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로 인해 그 국가의 특수성이 약화되는 결과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sup>40)</sup> 오히려 세계화는 애국심, 민족주의와

---

38) M. Djelic, “Exporting the American Model,” in R. Hollingsworth, et al.(eds.), *Advancing Socio-Economics: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39) R. Hollingsworth, and R. Boyer,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N. Fligstein, *The Transformation of Corporate Control*(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같은 국가적 애착 및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편다. 국가 및 기업 간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경제적 세계화에 직면하여 개별 국가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차별화를 추구하게 되며, 그 결과 이들은 형태나 구조면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차별적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sup>41)</sup> 전 세계 단일시장을 추구하는 세계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들은 그들 경제 특유의 운용방식 및 차방을 추구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sup>42)</sup> 세계화 시대에도 지역적 특수성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이 전 세계적 제도와 규범의 확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면, 두 번째 입장은 이에 대한 개별국가의 대응 및 재구조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표 1〉 세계적 동형화론과 국가경로 의존론의 비교

	세계적 동형화론	국가경로 의존론
강조점	전 세계적 유사성	개별국가의 특이성
동 인	전 세계적 경제통합 글로벌 스탠다드	국가적 유산 지역적 상황조건
동 학	세계주의(globalism)의 정치학	민족주의(nationalism)의 정치학
과 정	경제적 · 문화적 규범에 대한 조응 (전 세계적 동형화)	지역 기반 행위자의 저항 (개별국가의 특수성)
결과	동질성	이질성

〈표 1〉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입장의 주요 주장들을 정리한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여 세계적 동형화론이 글로벌의

40) Featherstone(1990).

41) Guillen(2001), p.6.

42) L. Weiss(ed),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Bringing Domestic Institutions Back In*(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국가경로 의존론은 로컬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동형화론과 국가경로 의존론은 여러 지점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 모두 세계화의 특정한 측면들을 서로 다른 부분에서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레크너와 볼라이는 그 이유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sup>43)</sup> 첫째, 지구적인 규준(global rules)은 지역 기반의 행위자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며, 전 세계적 전범(world models) 역시 지역적 상황에 입각해 수정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지구적 수준에서 중대되는 유사성은 결국 지역적 수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적 특수성은 세계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한 국가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설명변수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의 압력은 민족주의를 억압하기 보다는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세계화는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가정체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sup>44)</sup> 서로 다른 국가에서 국가 간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국가의 특수성은 훈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다. 글로벌(세계적인 것, 세계적 영향력, globalness)과 로컬(지역적인 것, 지역적 유제, localness)은 상충될 수도 있지만 상호보완적이기도 한 것이다.

---

43) F. Lechner, and J. Boli, *The Globalization Reader*, 2nd edition(Malden, MA: Blackwell, 2003).

44) G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표 2〉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 작용을 잡아내려는 이념형 수준의 이론들이다. I은 세계화의 압력과 지역적 유산이 한 사회 안에 동시적으로 강력히 존재하는 접합(articulation)의 양상이다. II는 세계화의 압력이 미미한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국가 경로 의존의 양상이라 할 수 있으며(국가 경로 의존),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한 세계화의 압력에 비해 지역적 특수성이 미미한 조합으로써 국제적 규범 내지 표준에 대해 별 다른 저항 없이 그 사회에 수용되는 양상이 세계적 수렴인 III이다. 마지막으로 IV는 국제사회와 연결고리가 없는 아울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의 취약한 지역성의 유제를 지닌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현대사회에서는 극히 존재하기 어려운 고립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표 2〉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

		글      로      별	
		강	약
로컬	강	I 접합	II 국가경로 의존
	약	III 세계적 수렴	IV 고립

문화 세계화의 지배적인 양상은 기존의 이분법적 주장이 강조한 글로벌 혹은 로컬의 일방성이 관철되는 세계적 수렴 혹은 국가경로 의존이기 보다는 I 영역인 글로벌과 로컬의 접합이다. 글로벌과 로컬이 상호작용하는 접합의 양식은 매우 다양하다. 대등하게 대립하는 경쟁으로부터 로컬의 강력한 저항에 이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대등한 경쟁을 비롯하여 상호 조정으로서의 선택, 수용, 모방의 접합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저항의 모습도 포착된다. 다시 말해 접합의 양식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양식은 문화의 여러 구성적 실체에 의해

중중적으로 연결된다. 즉 자본, 소통, 정체성으로서의 문화가 접합의 틀 내에서 중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 6. 맷음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할 논자는 별반 없을 것이다. 문화가 중요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문화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제적 관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와 세계성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문화가 차지하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현상을 둘러싼 세계화의 양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자유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경제 세계화의 사회적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화의 세계화 논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문화의 본질적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소통으로서의 문화, 정체성으로서의 문화적 속성이 진지하게 제기되면서 문화를 둘러싼 세계화 양상은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중심과 주변, 지배와 피지배, 동질화와 이질화, 강한 문화와 약한 문화,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다원주의로 전개된 기준의 이분법적인 논의를 넘어서야 하는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본 논문은 먼저 문화의 본질적 속성을 자본으로서, 소통으로서, 정체성으로서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속성의 논리와 구성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관계 형성을 정리하면서 기준의 이분법적인 논의를 넘어서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문화 세계화를 둘러싼 쟁점을 자본, 소통, 정체성 사이의 긴장과 이완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오늘의 문화 세계화에 내재된 복잡성과 다양성을 독해하기 위해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글로벌의 자본 일방이나 로컬의 저항이 아닌 접합의 양식을 문화 세계화의 지배적인 양상으로 독해하였다. 글로벌과 로컬이 분리되고 동시에 통합되는 분합(分合)의 양상을 이 시대의 현실적 모습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문화와 문화가 섞이는 혼성이나 잡종이 아니라 근자에 인류학자들이 강조하는 크레올화(creolization)<sup>45)</sup>에 가까운 현상에 해당된다. 문화와 문화의 관계에서 주변의 문화가 중심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문화의 적절한 문화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모방하거나 때로는 거부 하여 그들 자신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글로벌의 것과 접합시키는 매개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문화란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지역성의 자체적인 역동과 그들 나름의 조정 능력에 의해 조형되는 것이다.

문화 세계화의 과제는 과거 근대성의 질곡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성의 조건을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비록 오늘의 문화를 둘러싼 세계화가 과도기적이고 이렇다 할 궁정의 결과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계화가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성찰적 세계화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를 하나의 집합적 실체로 사유하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며 정체성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계성의 구현이 성찰적인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것이다. 오늘날 문화의 세계화만큼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시의 구절을 곱씹어 하는 대목도 없을 것이다.

논문 접수일 4월 23일, 심사 완료일 6월 1일

---

45) 본래 크레올은 언어학에서 무역관계나 식민지 상황에서 다른 집단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던 초보적인 이차적 언어가 다음 세대에 의해 일차적인 언어로 동화된 상황을 의미하던 것으로서, 주변 혹은 수용국의 자체적인 역동성에 의해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있음을 함축하는 적극적 개념이다.

approach, Also, this lens makes it possible to re-interpret meaning of major/minor and have a fruitful discussion for legitimacy. From this perspective, a comprehensive argument can be completed to include the least beneficiaries' private sphere, which lead to a new ideal model of world order based on de-gendered states.

Keywords: Soft Power, women's perspective, de-gendered, major/minor, legitimacy

## Reconstructing Cultural Dynamics of Globalization: Capital, Communication and Identity

*Gil-Sung Park*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There is much debate currently on globalization of culture. In its simplest classification, the body of literature has been developing in a dichotomous way, classifying the core and the periphery, the domination and the subordination, the universal and the particular, the strong culture and the weak culture, and the global and the local.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n account that makes sense of the logic and complexity of the cultural globalization. In this paper, we attempt to compile a theoretical argument of the culture which manifests itself in three ways: culture as a capital, culture as a communication, and culture as an identity. Also I present different types of the interplay between globalness and localness and suggest the simultaneous coexistence of the strong global and the strong local as the overall tendency observed in contemporary society. The global contents are prevailing but at the same time strongly embedded in the local legacy, reinterpretation, and resistance in conjunction with the three ways of cultural manifestation.

Keywords: globalization, culture, capital, communication, identity, locality